

U.S. Daily Briefing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

2023.03.03.(금) 제23-026호

- ◆ [Focus] 美 무역대표부, 바이든 정부 2023년 통상정책 의제 발표
- ◆ [What's News]
 - (수출통제) 美 상무부, 37개 기업 거래제한 목록 신규 등재
 - (통상) 백악관, 대통령 직속 수출 위원회 재활성화에 시동
 - (대중경쟁) 美 118대 하원, 대중경쟁 강화 예고
 - (미-EU 관계) 미-EU, 전방위적 협력을 위한 정상급 회담 예정
 - (입법동향) 미 상원, 미영 FTA 협상 착수 법안 초당적으로 발의
- ◆ [Top Headlines]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경제통상] 美 무역대표부, 바이든 정부 2023년 통상정책 의제 발표

1. 개 요

-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3년 통상정책 의제 및 2022년 연례보고서' 발표
 - USTR은 올해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가 담긴 '2023 Trade Policy Agenda and 2022 Annual Report' 공개(3.1)
 - '74년 무역법(163조)에 따라 매년 USTR은 당해 대통령 통상정책 방향과 전년도 활동을 종합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의무
 - 연례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우선순위를 통해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 바이든 통상정책 키워드로, 전년과 유사한 △우방 협력 강화 △노동자 중심 무역 △기후변화 대응 국제 공조 △미-중 무역 관계 조정 등 제시
 - '21년부터 의제에 포함된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이 목차에서 최상단으로 격상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제는 제외됨.

<2023년 및 2022년 통상정책 의제 비교(목차 순)>

2023년	2022년
•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	• 노동자 중심 무역 기초
• 노동자 중심 무역 기초	• 탈탄소화 가속 및 기후변화 대응
• 탈탄소화 가속 및 기후변화 대응	• 미국 농업 지원·육성
• 미국 농업 지원·육성	• 공급망 탄력성 강화
• 공급망 탄력성 강화	• 코로나19 위기 극복
• 미중 무역 관계 조정	• 미중 무역 관계 조정
• 무역정책 신뢰 증진	•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
• 공정경제 및 포용성 강화	• 무역정책 신뢰 증진
• (제외) 코로나19 위기 극복*	• 공정경제 및 포용성 강화

* '22년 포함되었던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제는 '23년 통상정책 의제에서 제외
 [자료원] USTR 무역대표부 연례보고서

2. 주요 내용

□ 교역 파트너와 협력 강화

- '23년 최우선 과제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미주 파트너십 (Americas Partnership), 대만, 케냐와의 이니셔티브를 언급
- WTO 등 다자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참여 연대 강화, 미국이 주최하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포럼(APEC)을 통해 우선순위 공고화 전망

□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 추진

- 북미 3국 무역협정(USMCA)을 필두로 노동자 우선 무역 정책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노력 지속

□ 탈탄소화 경제 달성을 위한 무역의 역할

-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친환경 목표를 발전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새로운 무역 정책 중요성 언급
- 유럽연합(EU)과의 지속가능한 철강 합의(GSSA) 강조

□ 공급망 탄력성 강화

- 팬데믹과 러우사태로 나타난 공급망의 취약성 지적, 공급망 관련 행정 명령(E.O.14017)에 따라 탄력적인 공급망 시스템 유지 노력 강조

* 공급망 4대 품목: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명시

□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미-중 무역 관계 정립의 중요성 강조

- 중국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미국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all available tools)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 관계의 재조정(Re-Aligning)을 위한 우방 국가들과 적극 협력 구상 시사

* 경제 3법(인프라법,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노력 강조

□ 집행 강화를 통한 무역 정책에 대한 신뢰 증진

- 비시장적인 관행 차단,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 및 환경 규제 준수 등을 통해 무역 정책에 대한 신뢰 증진 노력

□ 공정하고 포용적인 무역정책 추진

-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며,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공평하고 탄력적인 경제 성장 실현 노력

□ 소중한 무역 파트너이자 긴밀한 동맹국으로 우리나라 평가

- 무역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해 온 점을 높게 평가

- '21년 한미 FTA 공동위원회(KORUS Joint Committee) 소집, '22년 4월 노동위원회(Labor Affairs Council) 등 공동 노력을 명시하고,

- 향후 공급망 문제, 지속가능한 무역, 신형 기술,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 해결을 위한 협력에 기대

< 연례보고서에서 언급한 '22년 한미 양국 간 회의 주요 논의 안건 목록 >

- (1) 미국의 육류 및 가공육 수출, (2) 한국의 유전자 변형 제품 수입허가 절차, (3) 한국 살충제 관련 리스트 제도, (4) 한국의 농산물 관세율 쿼터 관리, (5) 자동차 관련 규제, (6) 한국의 법률 서비스 개방 관련, (7) 금융 서비스업의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의무, (8) 온라인 콘텐츠 시장 규정, (9)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조달 등

3. 현지 반응 및 전망

- 규범 중심의 통상정책 의제 공유와 함께 미중 관계 변화 의지에 주목
 -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근로자와 일반인들을 무역 정책 중심에 두고 탄력성, 지속 가능성, 포용적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무역을 ‘선의의 힘’ (force for good)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언
 - 블룸버그 통신은 (1) 301조 대중관세 필요성 검토, (2) IRA 보조금 우려 해결을 위한 미국-EU TF 운영, (3) USMCA 무역협정 분쟁 이슈 절차 착수, (4) IPEF 협상, (5) 대만 이니셔티브 진전 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하원 무역 소위원회 아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 위원장은 미중 관계 조정을 위해서 “강제력 있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실리적인 무역협정 협상이 중요하다”고 성명 발표
 - 인사이트트레이드는 ‘23년 통상정책 의제에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새로운 무역 정책 수단(Tool)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지만, 새로운 정책 수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

▪ 작성자 | 워싱턴 무역관 김준희 과장

▪ 자료원 | 美 무역대표부 보도자료(3.1), 블룸버그(3.1), 인사이트트레이드(3.2) 등

□ [수출통제] 美 상무부, 37개 기업 거래제한 목록 신규 등재

- (개요) 상무부, 28개 중국 기업을 포함한 총 37개 기업을 거래제한 목록 (Entity List) 신규 등재(3.2)
 - 중국(28개), 파키스탄(4개), 미얀마(3개), 러시아·대만·벨라루스(각 1개)
- (상세) 제재 사유로 △러시아 방위 산업 지원, △중국군 현대화 및 對이란 제재 위반, △인권 침해, △탄도미사일 및 핵 활동 등 제시
 - (주요 동향) 쑤저우 센텍(Suzhou Centec) 커뮤니케이션 그룹과 테크놀로지 그룹은 미국산 제품을 중국군에 전달한 혐의로,
 - 중국 유전학 기업인 BGI 그룹과 BGI 테크 솔루션이 보유한 정보가 소수 민족과 자국민 감시 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을 두고 제재
- (감시 강화) 상무부·재무부·법무부는 對러시아 제재 회피에 대한 감시 강화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 발표(3.2)
 - 8개 주의사항 언급 및 러시아 인근 지역 환적 시도에 각별한 주의 요구
 - * 아르메니아, 터키,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홍콩, 마카오

▪ 작성자 | 워싱턴 무역관 이준성 대리

▪ 자료원 | BIS(3.2, 3.6 예정), 재무부 보도자료(3.2), 월스트리트저널(3.2) 등

□ [정부] 백악관, 대통령 직속 수출 위원회 재활성화에 시동

- (개요) 백악관, 대통령 직속 수출 위원회(PEC; President Export Council) 재활성화 노력으로 25명의 회원 지명(2.28)
 - 백악관은 대통령 직속 수출 위원회가 국제 무역에 관한 핵심 정부 자문 위원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강조 * 상무부 장관을 통해 자문 가능
 - PEC는 '16년 마지막 회의를 기점으로 활동 정지된 상태였으며, '21년 이후 민·산·학 단체에서 재활성화를 권고해옴.
 - * 바이든 대통령은 E.O. 14048 행정명령을 통해 21.9.30~23.09.30까지 PEC 유지 근거를 마련

< 대통령 직속 수출 위원회 구성 현황 >

구 분	주요 구성원
백악관	예산관리실, 경제자문위원회, 국가경제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
정부 부처	농업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노동부, 국무부, 교통부, 재무부
의회	상·하원 모두 2년 임기의 위원(5명) 임명 가능
무역 부처	무역대표부, 중소기업청, 수출입은행, 무역개발청, 국제개발금융공사
지방 정부	전국 주지사(Governor) 협회, 미국 시장(Mayor) 회의
회원	대통령은 연방정부 고용인이 아닌 경제·산업·노동·농업 전문가를 임기 제한 없는 회원(28명)으로 임명 가능

[자료 : 대통령 직속 수출 위원회 헌장(21.11.16)]

- (상세) 바이든 대통령은 PEC 의장으로 마크 D. 아인(Mark D. Ein), 부의장으로 로잘린드 브루어(Rosalind Brewer)를 지명

* 마크 아인 의장은 보안업체 Kastle Systems의 회장, 로잘린드 브루어 부의장은 대형 유통업체 Walgreens Boots Alliance의 CEO를 역임 중

- 그 외 디즈니, 포드, CVS, 3M, 퀄컴(Qualcomm), FedEx 소속 기업가와 자동차 노동조합(United Autoworkers) 회장, 카네기멜론대학 총장 등 다양한 출신의 인사들을 회원으로 포함

- 현지 언론은 행정부의 PEC 회원 임명을 통한 무역 논의 활성화 및 국내 산업과의 소통 강화 기대

▪ 작성자 | 워싱턴 무역관 이준성 대리

▪ 자료원 | 백악관 보도자료(2.28), PEC 헌장(21.11.16), 인사이드트레이드(2.28) 등

□ (대중경쟁) 美 118대 하원, 대중경쟁 강화 예고 동향

- (개요) 하원 위원회들은 개별 청문회를 열고 다수의 대중 법안 심사(2.28)

-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외교위원회, 중국 특별위원회는 청문회 등을 통해 대중 견제와 대만 지원을 위한 법안 심의 통과

-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반대법’(PRC is Not a Developing Country Act)과 ‘미국의 기술적 적대자 방지법’(Deterring America’s Technological Adversaries Act) 등 11개 중국 관련 법안 통과
- (상세) 미국 의회의 공세적인 대중 입법에 따라 미중 갈등 심화 전망
 -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반대법’은 국제 협정에서 중국을 개도국으로 표시하거나 대우하는 것을 반대하는 법안으로, 국무장관에게 중국이 개도국 지위로 얻는 국제 특혜나 지원 박탈 방안 마련 요구
 - ‘미국의 기술적 적대자 방지법’은 틱톡을 비롯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여타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
 - 또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미국이 중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개입을 감시하고 위안화의 불투명성에 대응하는 법안 통과
- (반응) 일각에서 속의 없이 추진되는 대중 입법에 우려 제기
 -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전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대중 견제 법안들이 초래할 광범위한 영향에 비해 의회 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부족했다”라고 주장

▪ 작성자 | 워싱턴 무역관 이인덕 대리

▪ 자료원 | 인사이트트레이드(32), “개도국 지위 반대법”(228) “기술적 적대자 방지법” (228)

□ (미-EU 관계) 미-EU, 전방위적 협력을 위한 정상급 회담 예정

- (개요) 백악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방미 일정 발표(3.2)
 -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
 - *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부집행위원장의 방미 일정은 코로나로 취소 (3.1)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10까지 북미에 머물며 바이든 대통령과 전방위적 미·EU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상세) "IRA, 녹색 기술, 등 광범위한 문제 인식과 해결 집중할 것"
 - EU는 미국의 IRA 전기차와 녹색 기술 관련 세액공제 조항이 유럽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언론은 이번 방미가 분쟁 해결을 위해 양 측간 협력 다각화를 예상
 - 특히 양측은 녹색 기술 혁신과 공급망 확보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대중 대응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원자재 클럽'(Critical Raw Material Club) 구체화에 대한 논의 전망
 - 또한 폴리티코는 양측이 우크라이나 지원 및 공동의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EU의 러시아산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녹색 전환 가속화에 대한 논의를 예상

▪ 작성자 | 워싱턴 무역관 이인덕 대리

▪ 자료원 | 백악관 보도자료(3.2), 인사이드트레이드(3.2), 폴리티코(3.2)

□ [입법동향] 미 상원, 미영 FTA 협상 착수 법안 초당적으로 발의

- (개요) 크리스 쿤스(민주) 상원의원, 경제 역동성을 위한 투자와 무역 협상 착수법(Undertaking Negotiations on Investment and Trade for Economic Dynamism Act, UNITED법) 발의(3.2)
 - 해당 법안(S.629)은 미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으로(발효 후 180일 이내 협상 시작)
 -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상을 통해 기후변화, 노동권,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높은 수준의 국제기준* 수립 추진
 - * USMCA에서 협의가 이뤄진 수준을 기대
 - 동 법안은 공화당 소속 존 톤 상원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
- (배경) 브렉시트 후 미국과 영국은 FT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
 -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FTA 체결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범대서양 무역의 미래 환담(Dialogue on Future of Atlantic Trade)을 통해 양국 간 무역 관계 정립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지난 117대 의회에서도 쿤스 의원은 롭 포트만(공화) 상원의원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S.4450, SPECIAL RELATIONSHIP Act)
- 최근 영국-EU 간 북아일랜드 협약 합의가 미-영 자유무역협정 재추진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
 - * 굿 프라이데이 합의의 준수가 바이든 대통령 및 민주당 의회 핵심 인물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음

- (비고) 이 법안은 작은 Trade Promotion Authority로 해석되는 중
 - 기존에 행정부에 의회 대신 FTA 협상을 할 권한을 주었던 위 권한은 '21년 만료되었으나 행정부는 TPA 갱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

- | | |
|-------|--|
| ■ 작성자 | 워싱턴 무역관 장석일 차장 |
| ■ 자료원 | 크리스 쿤스 의원실(3.2), 인사이드트레이드(3.2) |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p>U.K. Chip Designer Arm Plans New York Listing, in Blow to London (영국 ARM의 뉴욕증시 상장 고려, 런던에 악재)</p> <p>미국, 유럽, 중국이 각자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분주한 가운데 ARM의 이번 결정이 런던증권거래소와 영국 반도체 산업에는 실망스러운 소식이라는 평가</p>
The Washington Post	<p>Amazon says it is pausing construction at HQ2 in Arlington (아마존, 버지니아 알링턴 제2본사 건설 중단 예정)</p> <p>일부 빌딩은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나 제2본사 프로젝트 2단계인 Pen Place는 잠정 중단될 전망. 아마존의 작년 적자와 비즈니스 급속확장의 후유증으로 분석</p>
New York Times	<p>Germany's chancellor, Olaf Scholz, is visiting Washington amid worries over the war in Ukraine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 러우사태 관련 워싱턴 방문)</p> <p>솔츠 총리는 금요일 워싱턴에 2일간 실무방문. 사전 브리핑 등이 없던 이번 방문은 러우사태 종식 협의를 위함으로 예상.</p>
CNN	<p>Attorney General Merrick Garland makes unannounced trip to Ukraine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 예고없이 우크라이나 방문)</p> <p>이번 갈런드 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러우사태 발발 이후 2번째. 2주 전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후 엘런 등 미 내각이 후속 방문 중.</p>
USA Today	<p>Bill to prevent many electric car dealerships opening in Mississippi heads to governor's desk (전기차 제조사 직영 딜러십 금지법안, 미시시피 주의회 통과)</p> <p>자동차 제조사들이 미시시피주에서 직영 딜러십을 운영할 수 없게 하는 이 법안은 테슬라, 리비안 등 직영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던 제조사들에게 영향이 될 전망</p>

* 미국 동부시간 3월 3일 15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 · 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05	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현황 업데이트 및 시사점	2023.02월
US23-04	미국 바이아메리카 특혜 지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3.02월
US23-03	북미무역협정 자동차 원산지 규정 분쟁 판결 결과 및 시사점	2023.02월
US23-02	미국 컨테이너 해운 현황 및 2023년 글로벌 동향 전망	2023.01월
US23-01	현지 기관이 전망하는 美 118대 의회 중대 정책의제	2023.01월
US22-45	美 경제 현황과 주요 기관 2023년 전망에 따른 시사점	2022.12월
US22-44	제3차 미-유럽 무역기술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12월
US22-43	미·중 경제안보 심의위원회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12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해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 획7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2023.01월
US22-기 획6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 획5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 획4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8 (2023.2.22)	 <p>미국 주류왕 황원균 회장 인터뷰</p>	
코인시-7 (2023.1.9.)	 <p>워싱턴 특파원 3인방이 짚어주는 2023 미국 경제전망!</p>	